

- 2024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일 시 2024. 08. 22 (목)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최보운 국회의원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보건복지부

협력단체 | 골든에이지포럼, 사)지속가능발전원,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동아노인복지연구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복지원로회,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일 시 | 2024년 08월 22일 (목)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공 동 주 최 | 최보운 국회의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인사말】.....최 보 윤 국회의원

【축 사】.....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주 제 발 표】

정 형 선 소장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토 론 문】

김 원 식 객원교수 (조지아주립대/건국대 명예교수).....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여 나 금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구 슬 이 보건복지여성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협력기관 및 단체) 소개.....

프로그램

1 부

사회 : 김 은 경 사무국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호서대학교 겸임교수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 최 보 윤 국회의원
- 4) 축 사..... 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 5) 참석자 소개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6) 단체기념사진 모든 참석자

2 부

좌장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주제발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 형 선 소장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 토 론

.....김 원 식 객원교수 (조지아주립대)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여 나 금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구 슬 이 보건복지여성팀장 (국회입법조사처)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정 형 선 교수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보운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소장 정현성 교수님과,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님,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님, 구슬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주신 조지아주립대 김원식 객원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의 GDP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증가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인 2033년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건강보험 체제 이후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한 의료비를 경제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의료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2022년 전체 건강보험 환자의 ‘보험 외 의료비’는 32.2조 원에 달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의 78%인 3,99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급된 보험금은 14.1조 원에 달하며,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비급여 의료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손보험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의료와 건강보험 체계를 크게 흔들어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개최되는 정책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논의된 좋은 정책 대안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8.22.

국회의원 최 보 운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구 서구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먼저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실손보험 제도의 현주소 파악과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신 최보운 의원님과 선진복지사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님, 발제를 맡아주신 정형선 소장님, 열띤 토론을 진행해주실 여나금 연구위원님, 이주열 교수님, 김원식 교수님, 신성식 기자님, 구슬이 팀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제도는 지금 적자 규모만 약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의료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 제도는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5월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 9,738억 원 적자로, 전년 1조 5,301억 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 원 늘었습니다.

또한, 감소세를 보이던 비급여 보험금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2022년 7조 8,587억 원에서 지난해 8조 126억 원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편 실손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늘었는데, 2023년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전년보다 14만 건 늘어난 3,57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에 의존해 병원을 과도하게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실손보험 제도의 재정립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책 마련의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미래 지향적인 개선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열린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비급여

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손보험 제도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축 사

현재 정책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최보운 국회의원님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실손보험은 1999년에 도입된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현재는 가입자가 3천만이 훨씬 넘는 상황으로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도입하고 보장 범위도 조정하여 왔습니다. 실손보험이 질병이나 상해로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고 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상승하는 문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발족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나친 보상으로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손보험의 급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의료계 그리고 보험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는 타이밍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정형선 소장님의 주제발표와 여나금 연구위원, 이주열 교수, 김원식 교수, 신성식 기자, 구슬이 팀장님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좋은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실제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대정원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손보험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과정에서는 가입자, 의료계 그리고 보험업계 모두가 개선방안에 뜻을 같이 하고 실천과정에 동참하는 새로운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08.22.

서 상 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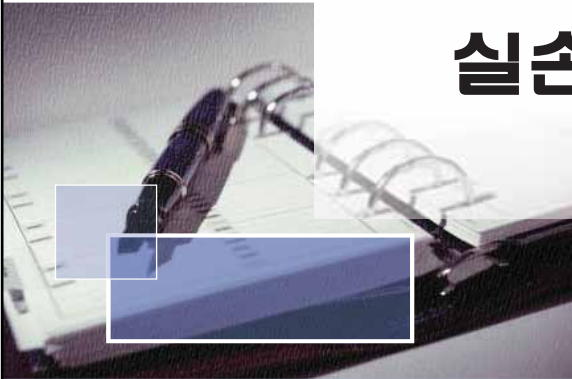
[주 제 발 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 형 선 소장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비급여 관리 및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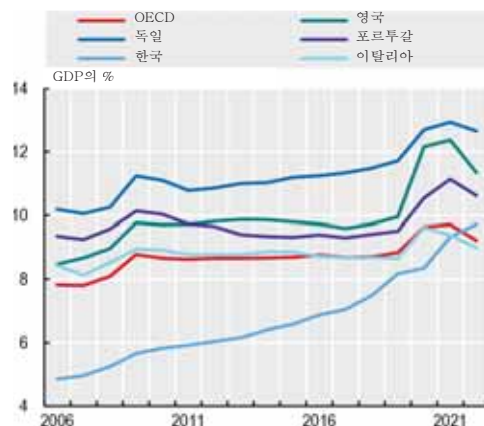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소장/ 보건행정학부 교수)

한국 국민의료비의 급증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OECD, 2023)

- “지난 15년 동안의 OECD 국가의 의료비 및 GDP 추세를 분석해보면, 두 가지의 충격, 즉, 2008년의 경제 및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이 기간 중 의료비와 GDP의 추세는 뚜렷한 패턴을 보인 바, 2009년과 2020년에는 의료비가 급증했고 그 사이는 안정기였다. 영국의 증가는 2021년에 훨씬 두드러졌다. 독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비의 GDP 비중’이 계속 높아졌다.”
- “한국의 ‘의료비의 GDP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2009년과 2020년 외에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2023)

국민의료비의 미래추계, 2024-2033



- 지금의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인 2033년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도달하게 됨
- 지금의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책이 강구되면 그 비율은 14% 이내로, 강력한 억제책이 강구되면 12% 선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임



한국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한국 국민의료비의 높은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과거의 의료비 수준** 때문에 산출된 수치이기도 했고, 다른 국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인상을 통한 의료비의 상승이 2000년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했음
- 하지만 소위 '**2000년 건강보험 체제**' 이후의 **20년간의 의료비 급등**은 암울한 한국 의료의 미래 모습을 암시하고 있음.
- 우리 사회가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경제의 변화에 맞게 **의료 이용량을 '조정'하고, 의료가격의 상승을 '억제'**해 내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음.
- '**억제 시나리오**'를 작동하게 하기 위한 여러 기전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건강보험 비급여의 규모 추정, 2023



- 전체 건강보험 환자의 2022년 '보험 외 의료비'는 32.2조원
- 공단의 진료비실태조사 대상인 비급여는 21.1조원으로, 항목별로는 주사료 3.3조원, 처치수술료 1.5조원 등임
- 진료비실태조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비급여는 7.8조원으로, 항목별로는 간병비가 3.4조원, 일반의약품 1.8조원, 개인건강검진 1.7조원 등임: 이 중 간병비 등 일부는 향후 급여화 가능성이 높음

				건강보험 환자의 보험 외 의료비: 32.2 조원				
				진료비 실태조사 대상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외		
				건강보험 보장률 포함		건강보험 보장률 외		
				21.1 조원		0.3 조원		
필수의료 보장률(?)				구분		요양기관		
				항목 명		항목 명		
				규모(비중)		규모(비중)		
3안 (치료적+ 제도+선택)	2안 (치료적 +제도)	1안 (치료적)	기준비급여 및 등재비급여	치료재료	1,339			
				검사료	1,113			
				주사료	3,882			
				처치수술료	1,759			
				MRI	1,062			
	제도 비급여			초음파	748			
				식대	16			
				기타(행위료, 약제비 등)	5,547			
				선택진료	-			
				상급병실	697			
			치과보철/교정(치료)	2,469	간병비	3,378		
			한방침(치료)	2,469	한방침(건강증진)	332		
					예방(보건소 등)	139		
					건강영양(개인)	1,699		
					(약국)일반의약품	1,832		
				(약국)의료소모품	749			
		기타						
의료비 외			성형미용	치과보철/교정(미용)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과 지급항목



- 2023년말 현재 전국민의 78%인 3,999만 명 가입
- 2023년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14.1조 원으로, 비급여의 비중은 56.7%

실손보험 보험금 추이(단위 : 조원)

구분	'19	'20	'21	'22	'23	5개년 평균(비중)
실손 보험금	10.2	11.1	12.5	12.9	14.1	12.2 (100%)
급여	3.7	4.0	4.6	5.0	6.1	4.7 (38.5%)

- 2034년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항목: 비급여주사료 28.9%,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포함) 28.6%,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포함되지 않음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5개 항목별 비중

'21년		'22년		'23년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항목	비중*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25.8%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26.2%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28.9%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21.8%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23.5%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28.6%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	12.9%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	9.5%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2.4%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2.5%	재판매가능치료재료	2.0%
재판매가능치료재료	1.8%	재판매가능치료재료	2.2%	하지정맥류	1.6%

* 해당 년도 비급여 보험금 대비 각 항목별 보험금의 비중

1세대 실손까지의 보험상품

❖ 손해보험

- ✓ 1960년대 후반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단체보험상품을 판매했고, 1977년 단체건강보험, 1978년 성인병 및 부인병 보험 특약상품, 1980년 암보험을 개발.
- ✓ 1984년 다양한 형태의 상해보험들이 실손보상체계 하의 보통상해보험으로 통합
- ✓ 1980년 중반에는 특정질환을 보장하는 상품과 단체보험상품이 개발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보충보험상품 등이 개발됨.
- ✓ 1992년에는 건강생활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간병보험 등이 개발됨.
- ✓ 1997년 제3보험의 경영이 허용된 이후 정액형 및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됨
- ✓ 1999년 후불방식의 중합의료보험상품을 개발함.
- ✓ 2000년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는 명분 하에 의료비보장보험 증가

❖ 생명보험

- ✓ 1980년 정액형 암보험의 등장 이후 다양한 상품이 출시
- ✓ 1990년대 암보험 등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 2002년 이후 CI(Critical Illness)보험 형태로 발전
- ✓ 2003년에는 정액형의 장기간병보험(LTC) 도입
- ✓ 2003년 9월에는 의료비실손보험이 단체상품에 도입
- ✓ 2005년 9월부터 개인상품도 판매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2008년 5월부터 판매 시작

실손 세대별 상품의 현황



실손 세대별 상품의 내용과 특성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기본 구조	- 상해·질병 입·통원 (주계약/특약 구분 없음)		- 주계약 (급여+비급여) 1) 상해입원 2) 질병입원 3) 상해통원 4) 질병통원 - 특약 (특정 비급여, 입·통원 통합) 1) 도수·증식·체외 충격파 2) 비급여주사 3) 비급여MRI	- 주계약 (급여) - 상해·질병 구분, 입·통원 통합 - 특약 (비급여) - 상해·질병 구분, 입·통원 통합
보상 한도	- 입원: 상해·질병당 최대 1억원 - 통원: 통원일수 30일 한도, 최대 50만원 (단, 질병통원의 경우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최초 통원과 동일 한 기준 적용)	- 입원: 상해·질병당 최대 5천만원 - 통원: 연간 180회×회당 30만원	- 주계약 1) 입원: 상해·질병당 최대 5천만원 2) 통원: 연간 180회×회당 30만원 - 특약 1) 도수치료 등: 연간 350만원/50회 2) 비급여주사: 연간 250만원/50회 3) 비급여MRI: 연간 300만원	- 주계약 (급여) 1) 상해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2) 질병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단, 통원은 회당 20만 원) - 특약 (비급여) 1) 상해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2) 질병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회수 제한)

1세대 실손보험은 2003년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가장 큰 특징은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표준화 실손'으로 불리는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판매되고, 여러 차례 경신을 통해 거의 실손보험 중에서는 가장 장수한 상품이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기본형 20%와 특약 30%로 나뉘었고, 보장내용은 2세대 상품에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 특약이 추가됐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적용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것이다. 또 자기부담률을 인상하고,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줄였다. 지난해 말 1세대 실손보험의 점유율은 19.1%로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2세대 실손보험은 45.3%로 2.5%포인트 줄었고, 3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은 23.1%로 0.8%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유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3년 만인 지난해 말 점유율 10%대에 진입했다. 기존의 1~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낮아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4세대 실손보험이 정착하기도 전에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https://www.news1.kr/articles/?5425304>

자료원: 보험연구원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자기부담 비율	- 입원: 0% (상급병실료차액 50% 공제)	- 입원: 10%/20%(선택) - 외래·처방: 10%/20%(선택)	- 주계약: 급여 10%/20%(선택), 비급여 20% - 특약(특정 비급여): 30%	- 주계약 (급여): 20% - 특약 (비급여): 30%
최소공제 금액 (건당)	- 입원: 없음 - 통원: 5천 원~1만 원 (회사·상품별 상이)	- 입원: 없음 - 외래: 최소 1~2만 원 - 처방: 8천원	- 주계약 1) 입원: 없음 2) 외래: 최소 1~2만 원 3) 처방: 8천원 - 특약(특정 비급여): 2만 원	- 주계약 (급여) 1) 병·의원급: 최소 1만 원 2) 상급·종합: 최소 2만 원 - 특약 (비급여): 최소 3만 원
보험료 할인·할증	- 무사고 할인 10%	- 무사고 할인 10% (2009. 10.~2013. 4.)	- 2년 무사고 할인 10%	- 2년 무사고 할인 10% -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 (3년 후 적용)
보험료 수준	40,749원	24,738원	13,326원	11,982원

자료원: 보험연구원

현행 실손보험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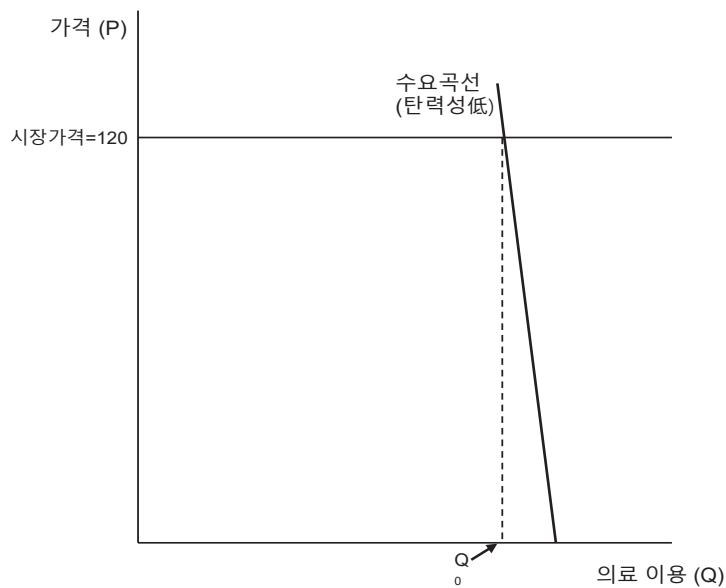


- 2021년 7월부터 4세대가 판매되고, 1~3세대는 판매중지되었으나, 1~3세대 기존계약은 최
장 100세까지 보유 및 관리해야 함
- 기존 보유계약에 대해 새로운 상품구조 개편의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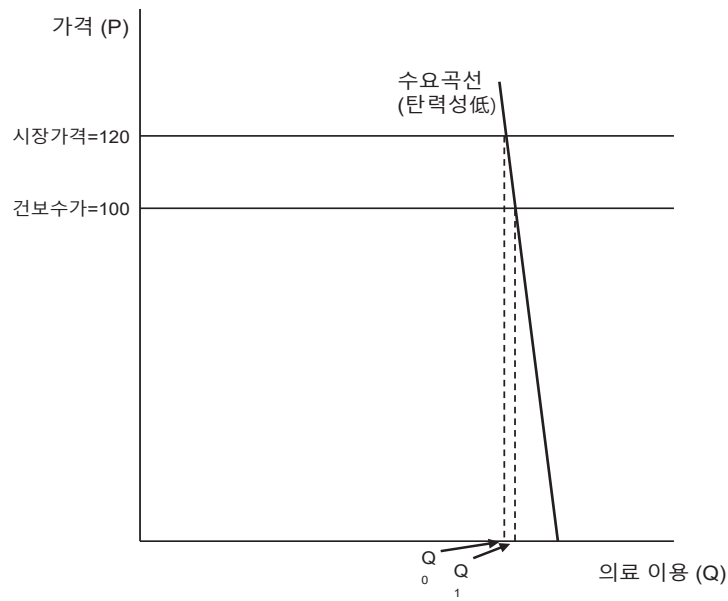
1~3세대 실손보험 문제점	
보험료 구조	• 실손가입자의 개별 건강위험 및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세분화 한계로 역선택·도덕적해이 노출 • 의료이용량과 상관없는 보험료 부담구조로 실손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심각
보장 구조	• 급여·비급여 포괄 보장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료공급 통제 기능 미흡 • 과다 의료이용 방지·보험료인상요인 억제 위하여 자기부담금 역할 확대 필요 • 의료환경·진료행태 변화 등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재가입주기 단축 필요

자료원: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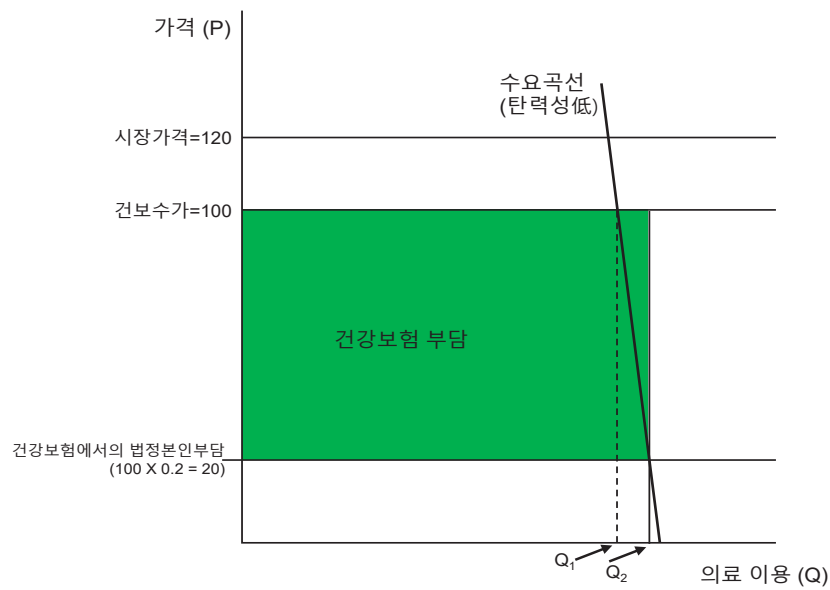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필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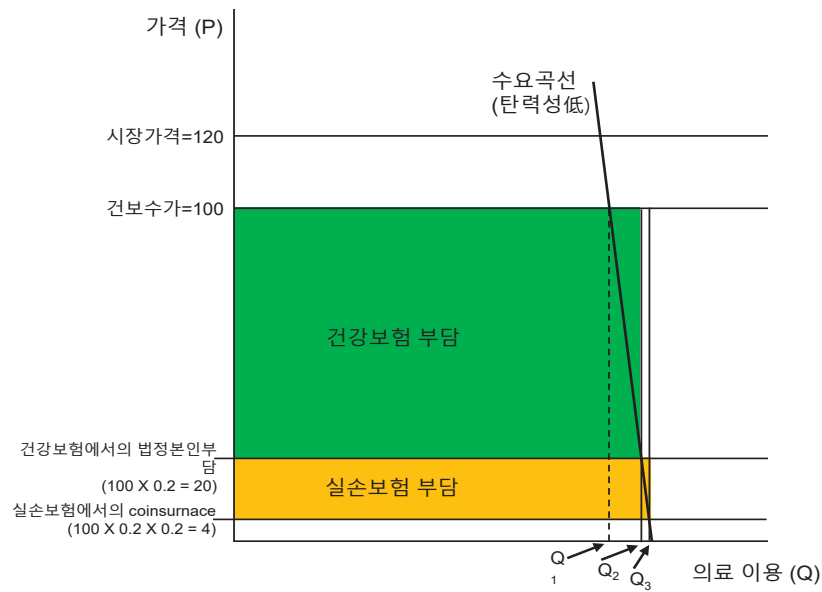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필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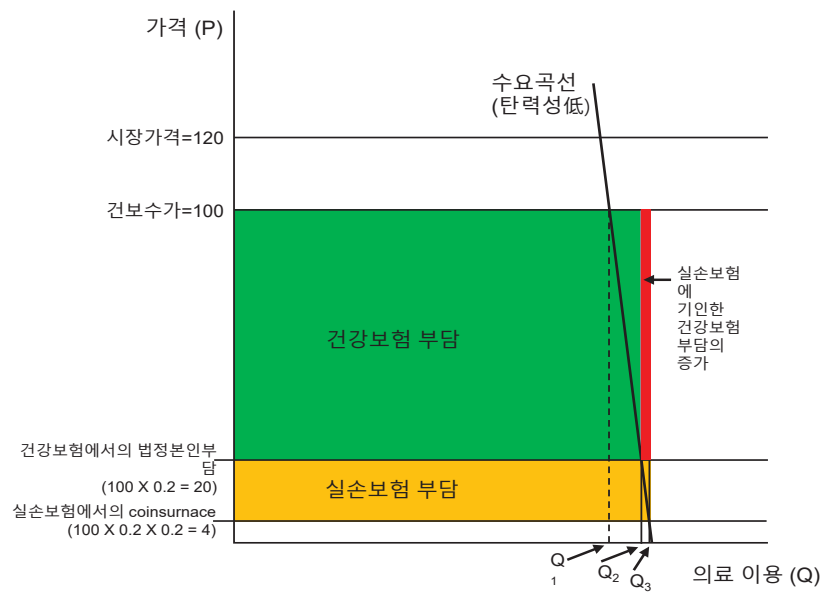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필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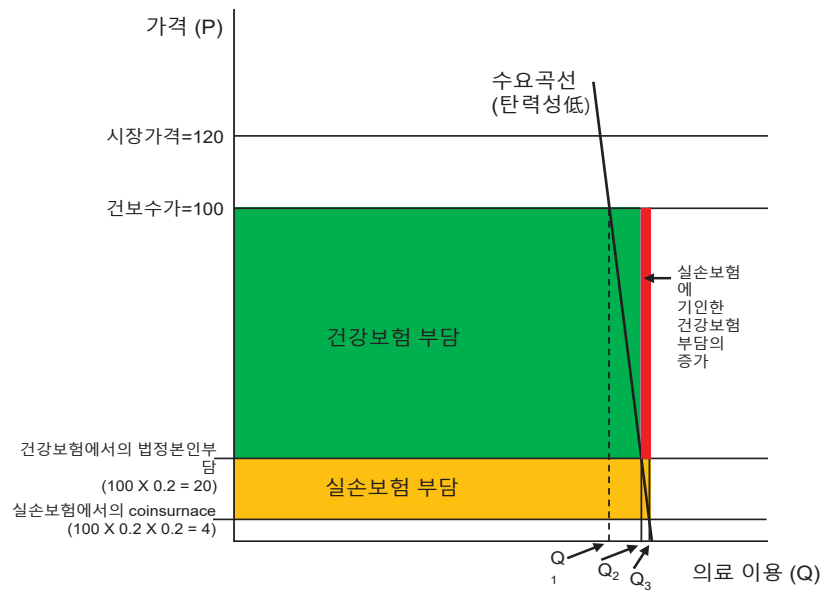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필수재)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필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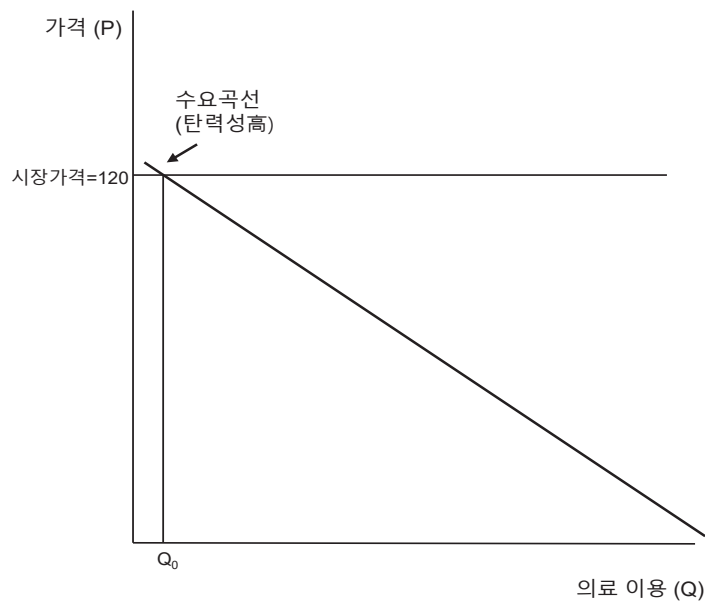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필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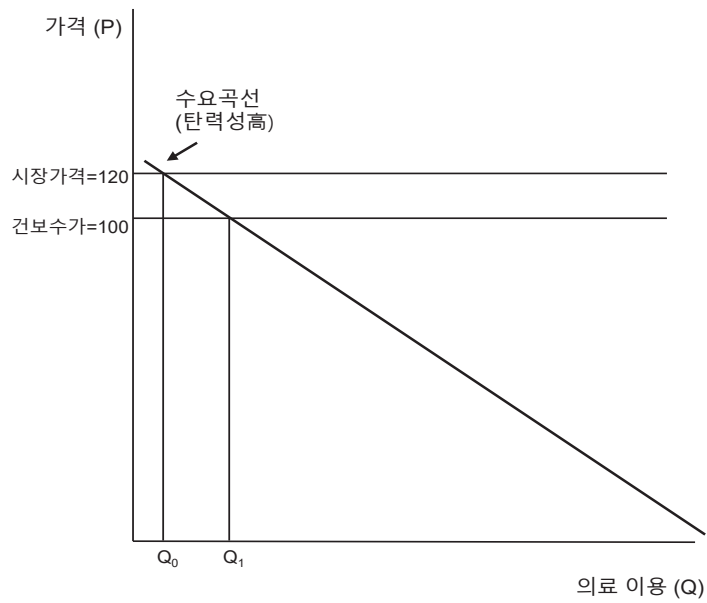


- 필수재(탄력성低)의 경우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상이 주로 약간의 본인부담마저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 (황색 부분)
- 도덕적 해이 현상은 미미함 (적색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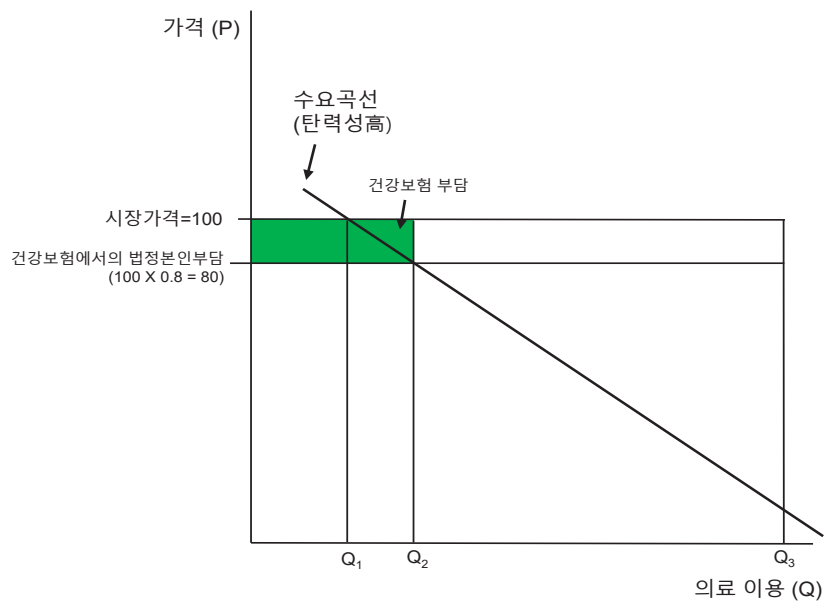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선택재/비필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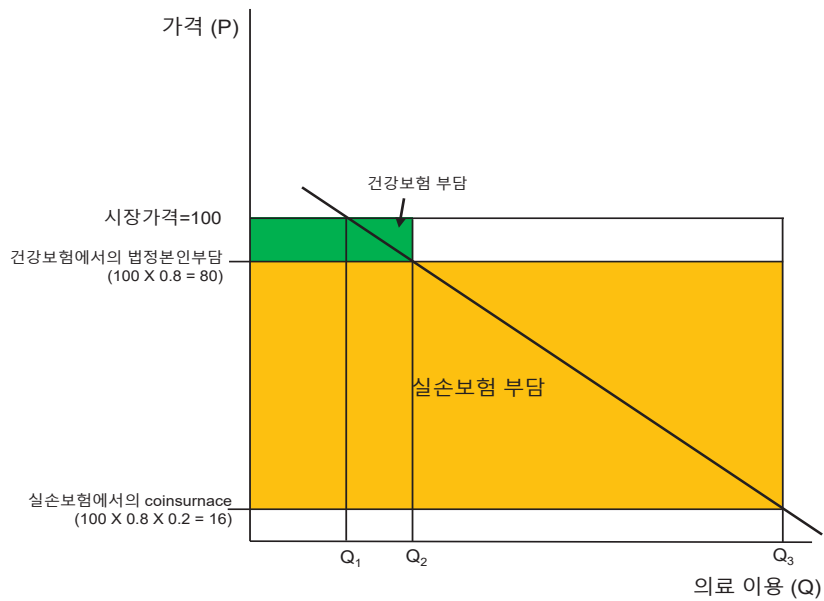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선택재/비필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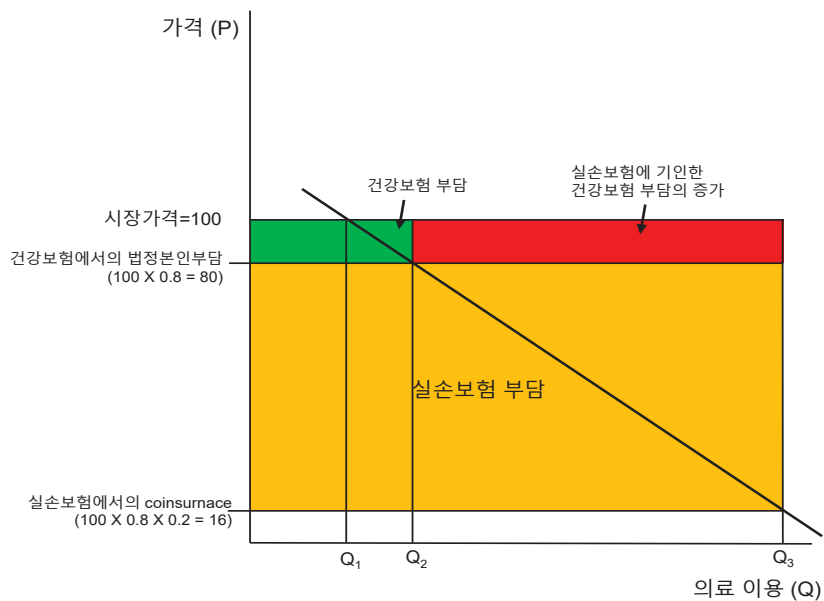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선택재/비필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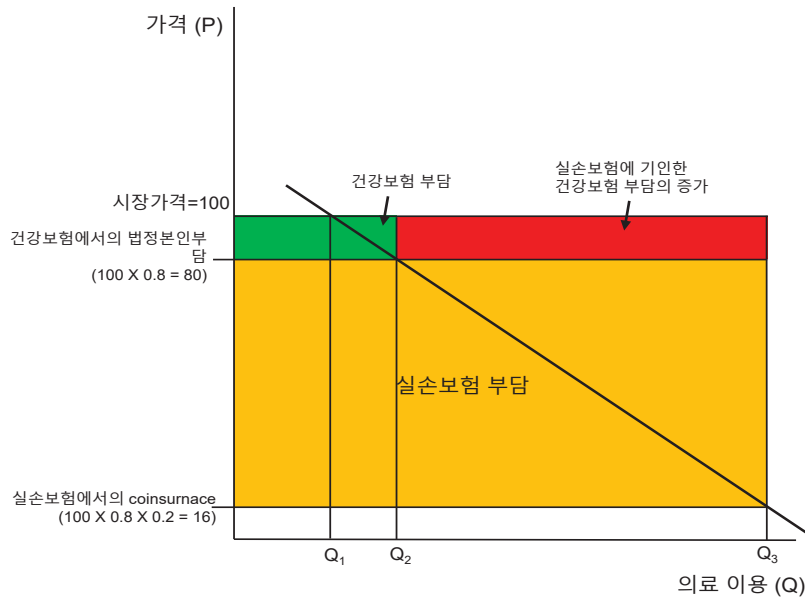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선택재/비필수재)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선택재/비필수재)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 (선택재/비필수재)



- 선택재(탄력성高)의 경우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상이 커서 실손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고 (황색 부분)
- 공보험에서는 주로 비용의식의 약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함 (적색 부분)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1.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는 전국민 공보험체계의 구조상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이용을 책임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이에 합당한 민영건강보험 거버넌스를 구축함
 -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과 '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
 - 보험업법 제2조의 '정의' 및 제4조의 '보험업의 허가'의 보험종목 개정
 - 건강실손보험의 심사청구절차의 확립(간소화) 및 공적 심사 강화
2. 비급여와 병용/혼합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항목을 정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고 실손보험의 관리 영역을 가시화 함
 -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뮬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 (이상, 예시) 규모나 가격의 변화와 편차가 큰 항목 중에서 선택성이 크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선정함
3.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가격 기능 유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미 95%-10%를 부담하고 법정본인부담 5%-90%를 설정함으로써 가격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 기존의 1-3세대 상품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마련: 실손보험료 조정한도의 상향 (예, 50%)
 - 과도기적으로 4세대 상품은 건강보험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금지 부분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갱신 추진
 - 보험회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 조치 강화: 회사에 대한 손실 책임 및 담당자 구상권

● 2015년 12월 15일 14:00 ~ 15:00 (1시간)

2000년대 전반만 해도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4%가 안 되었다. 지금은 7%에 근접해 있는 수준 중이다. 건강보험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전체 의료비의 60%를 막아야 국민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급여부담을 줄이고, 법정분인 보험료를 다 납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

토 론 문

김 원 식

건국대 명예교수 겸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비급여 의료비 관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서론>

- ‘비급여’란 단어는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밖에 없는 명칭입니다. 건강보험이 모든 진료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영역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수요가 끊임없이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건강보험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들의 모든 의료수요를 건강보험이 충족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진료까지 일반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공적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거나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욕구는 오래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의료는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개인들의 비필수적인 의료수요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AI, IT, 로봇 등 최근 급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되어 환자들을 조기에 완치하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한 비급여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비급여는 민영보험사가 부담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급여는 민영보험사들이 통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영보험사들이 이를 통제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급여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현황에 대한 평가>

-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의 손상을 억제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그러나 4세대 보험의 손실액은 도입된 2021년 20억원, 2022년 69억원, 2023년 292억원으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입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노후실손보험이나 유병력자실손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합하여 2023년의 경우 노후실손보험은 29억원, 유병력자보험은 867억원의 흑자입니다. 즉, 노후실손과 유병력자 보험의 이익이 보험사의 실손보험의 손실을 메꾸고 있습니다.
- 23년말 판매중단 회사는 손해보험의 경우 10개사중 3개사, 생보험의 경우 17개사중 10개사입니다. 최근까지 판매중단회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새로 진입하는 회사는 2012년 기준 없습니다.

<실손보험의 정책방향>

- 비급여 수요를 통제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 의료보험/실손보험입니다. 문제는 비급여를 자신들의 영역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이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들이 통제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민간보험사들에게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한해왔습니다. 가입자 정보에 따라 보험

료가 결정되지 않는 이상 비급여는 통제되지 않고, 누적적인 보험사의 손실은 증가할 것이고, 결국 합리적 행태의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더 이상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형보험사들만 실손보험을 팔게 되고 보험시장이 왜곡되게 됩니다. 대형보험사도 사실은 시장에서 탈퇴하고 싶으나 정황상 보험상품의 인허가나 감독을 금융감독원에 맡기면서 정부가 묵시적으로 실손보험 상품의 판매를 유지하고 있도록 강요한다고 봅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로 지속적으로 4세대 5세대 등의 변형된 보험상품이 나오는 현상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보험사들이 가입자에 대한 의료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민영의료보험의 존재적 의의는 가입자들의 의료비를 제3자로서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자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을 통하여 더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게 하고, 이로써 보험금도 줄임으로써 수익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확산이나 영역 확대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아니라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영보험이 가입자들과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이 가입자들의 건강 노력에 대한 유인은 주지 못하게 하면서, 혹은 가입자들의 건강 위해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연히 민영보험의 적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그래서 민영보험이 가입자들에 대한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2011년 국회에서 법안으로 논의된 후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 비급여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이 민영보험을 더 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필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선제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면 비급여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이 fee-for-service로 과잉 의료 이용을 허용하면서 당장 본인부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키우고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다보면 환자는 의사의 추천에 의하여 다양한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급여화해야 하는데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일단은 보험적용에 있어서 본인부담과 비급여부담을 분리해서 상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 비급여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있어서 보험사는 의료공급자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간에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급여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4)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보를 가입자/국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발제자에 대한 의견>

-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과 ‘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의료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민영건강보험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국민들의 의료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제도를 공공제도의 하부구조로 법규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의 단일 실손보험 시스템을 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화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실손보험에서 금지하는 것 보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위한 상품을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은 사실상 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를 받지만 비급여는 리스크관리가 없습니다. 이를 하나의 패키지에서 판매하다 보니 급여와 비급여간의 상호 의료비 상승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리스크를 다른 보험상품으로 분리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건강보험본인부담 실손보험과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완전 분리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실손보험 개혁 없는 의료 개혁은 실패한다¹⁾

의료시장 왜곡 요인이 된 실손보험
팔수록 손해지만 교차 보조로 유지
교차 보조 금지 등 판매 규제해야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파행을 겪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시장 왜곡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999년 출시 이후 매년 가입자가 증가해 현재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의료 보장의 필수품이 될 정도이다. 이를 통한 의료 남용이 일상화돼 한국은 의료 중독 국가라 할 정도가 됐다.

이는 국민의식 속에 의료보장시스템이 공공과 민간의 조합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실손보험을 제도권 밖의 제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일부로 흡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없이 당면한 의료 인력 편중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비급여가 많고 어떤 환자가 와도 수익이 보장되는 진료 과목으로 의사들이 쏠림에 따라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크게 줄 수밖에 없었다.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가 2009년 표준화로 세 차례에 걸쳐 규정을 변경하며 감독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손해율은 4세대 보험에서만 134.5%로 나타나는 등 큰 폭

1) 김원식, “[리셋 코리아] 실손보험 개혁없는 의료개혁은 실패한다”, 중앙일보, 2024.7.14

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실손보험 보험료가 매년 인상됐고 내년에도 10% 이상 대폭 인상된다고 하는데도 가입자는 줄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실손보험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율이 130%나 되니 누구든 내는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험회사의 경영 관점에서 보면 실손보험 손실을 어떻게든 메꾸어야 하므로 암묵적으로 다른 상품의 가입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다른 상품의 이익으로 실손보험의 손실을 메꾸는 교차 보조가 일반화되어온 것이다.

교차 보조의 일반화는 대형보험사에 매우 유리하다. 대형보험사는 모든 상품의 수지를 통합 관리하면서 실손보험을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31개 보험사 중 14개(손해보험사 3개, 생명보험사 10개) 중소보험사들은 이미 판매를 포기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이 실손보험 시장이 더 확대되면 판매를 포기하는 보험사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교차보조는 사실상 진입장벽이 돼 실손보험이 보험산업을 독과점 체제로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적자를 현재와 같이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불공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다.

손해율이 100%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손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가입자는 더 증가하고 의사들은 더 비보험이 많은 전문과목에 쏠리면서 의료시스템은 급속히 왜곡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왜곡을 조장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원가 보전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손실을 실손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허용해 왔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될수록 의사들의 실손보험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필수 및 지방의료는 공동화될 것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상품을 통한 실손보험 교차 보조를 규제해야 한다. 실손보험 상품의 회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손해율에 대해서는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 실손보험 상품 회계를 독립시키는 것은 실손보험 혹은 민영 의료보험 전문 회사의 진입과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보험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에 대비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비한 실손보험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가입자들이 둘 중 하나 혹은 두 개의 보험을 모두 가입하던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통제를 받는 의료수요에 따른 리스크이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개인 선택에 의한 것이어서 통제받지 않는 리스크이다. 비급여에 대비한 리스크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민영 의료보험이 가입자들의 건강 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건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기업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건강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마일리지 혜택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10년 이상 미루어진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도 허용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정상화는 의료체계 효율화뿐 아니라 의료와 국민 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이다.

토 론 문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실손보험 및 비급여 관련 정책 방향

1. 건강보험의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공보험이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민간부문이 지배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 설립은 허용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이 개인 자본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어서 재원을 진료 수입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를 통한 이윤 추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보험수가에 의하여 의료비용이 통제받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환자수의 증가, 환자당 진료량 증대, 비급여 진료의 확대 등이 주축이 되고 있다.

2. 국민 78%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실손보험은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이 지불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비급여 진료의 경우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넓혀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급여 진료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와 실손보험이 결합하면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가속화시켜 보험 재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지 말고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손보험 가입 원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 그간 정부와 보험자가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보험업계가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실손보험 관련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본인 부담율을 감소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원을 다각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 부담율을 감소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손보험이 소비자와 공급자가 과잉의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I를 활용하여 각 의사 및 의료기관별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3.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도입되었고, 2023년 1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

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보고 기간 4.15~6.30)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하였다. 2023년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2024년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4.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의과와 치과의 경우 더욱 비급여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된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과학적 검증을 통한 비급여의 경우 현재 보고 주기를 유지하더라도 그 외의 경우는 진료 내역 보고 주기를 매월 단위로 단축시켜야 한다.

5. 비급여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간 의료계는 근거 중심 의료를 강조해 왔는데, 비급여 중 근거가 미흡한 치료방법은 퇴출시켜야 한다. 비급여 정보를 활용하여 각 임상분야 전문학회와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이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검증을 통과한 항목만 표준 금액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각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비급여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내 전자게시판에 상시 공지하도록 한다. 공지할 내용은 건보공단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도록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토 론 문

여 나 금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방안

1.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관리 강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임. 현재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환자와 보험사 모두가 비급여 항목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됨.

또한 비급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각 의료기관은 비급여 정보를 소비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함. 각 비급여 항목에 대해 그 의학적 필요성, 예상 비용, 대체 가능한 급여 항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의학적 필요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는 급여서비스 만이 아닌, 비급여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환자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평가 기전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의료진, 보험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2.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여 비급여 과다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비급여 보장에 대한 연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한도는 통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음.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임. 현재보다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동시에 의료 소비자의 비용 의식을 높일 수 있음. 특히, 법정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장을 제외하는 접근이 필요함. 다만,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또한, 비급여 항목별로 차등 보장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높은 보장률을, 선택적 성격이 강한 항목은 낮은 보장률을 적용하는 식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는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수 있음.

3. 의료기관 인센티브 체계 개선

의료기관 인센티브 체계 개선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음. 긍정적 인센티브 도입, 부정적 인센티브 강화, 그리고 종합적 평가 시스템 구축임.

먼저 긍정적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살펴보겠음. 적정 진료를 실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다양한 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비급여 진료 비중이 낮거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일정 비율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있음. 또한 연간 평가를 통해 비급여 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추가적인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비급여 없는 병원(가칭) 인센티브 유형 및 내용 예시 >

인센티브유형	구체적인 내용
재정적 인센티브	- 건강보험 수가 가산 지급 - 별도 운영 지원금 제공 - 의료질 평가 지원금 산정 등 기관평가 시 가점 부여
행정적 지원	-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우선 처리 - 새로운 의료기술/장비 도입 시 신속 승인 -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가점 부여 및 평가 주기 연장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정부 차원의 비급여 없는 병원 목록 공개 및 홍보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쉽게 검색 가능 - 지역 보건소/공공기관을 통한 우선 안내
의료인력 지원	- 의료진 대상 추가 교육 기회 제공 - 공공의료인력 배치 시 우선 고려 -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시 가점 부여
연구 및 개발 지원	- 참여 의료 연구 프로젝트에 우선적 연구비 지원 -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임상 연구 수행 시 추가 지원
세제 혜택	- 법인세 감면 - 의료장비 구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 또는 환급
환자 유인책	- 이용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평가 및 모니터링	- 정기적인 서비스 질과 환자 만족도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적용

세제 혜택도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적정 진료 실천 의료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평거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 비급여 적정 관리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음. 마지막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차원의 홍보를 지원하여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다음으로 부정적 인센티브 강화를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과다 비급여 청구나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반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선 문제가 발견된 경우 경고와 함께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반복적인 위반이나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

로 부과하는 방안이 있음.

또한 의료기관 평가 시 **비급여 과다 청구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을 통한 의료기관 관리기전이 통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종합적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하겠음**.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먼저 **다면적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함. **비급여 진료 비중뿐만 아니라 환자 만족도, 치료 결과, 재입원을, 의료의 질, 비용 효율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임.

평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데이터, 의료기관 제출 자료, 환자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의료진, 보험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을 운영하여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등급화하고, 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평가 결과가 저조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평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함**.

이러한 종합 평가 결과를 앞서 언급한 **긍정적, 부정적 인센티브와 직접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적정 진료를 실천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져 환자와 보험체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4. 공적 건강보험-민간 보험 간 협력체계 구축

이와 같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 먼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음.

다음으로,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 평가 및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함.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비급여 진료비 청구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료비 청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의료 이용 데이터를 공동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협력체계가 구축될 때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토 론 문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비급여 개선 토론문

● 비급여 구분

-완전 비급여: 라식, 라섹, 금니, 도수치료, 백옥주사 진단서 발급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급여하지 않는 것

즉 척추 MRI CT 초음파, 약 의료행위 중 선별 급여 등이 있는데, 건보재정이 부족해서 급여하지 못하는 것, 필요성이 낮은 것,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한 것 등 비급여 비중은 줄고 있지만, 전체 진료비가 늘면서 비급여 금액도 커진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영보험이 가세하면서 혼란이 가중.

● 비급여는 필요악 같은 존재

저수가 체계에서 수입을 벌충하는 역할을 해 옴. 정부가 용인해 옴.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고령화, 국민 의료 소비 수요와 수준 향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증가.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실손보험 결합 등의 변화를 반영해서 다시 들여다볼 때, 그리고 그때가 이미 지났다.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 지 오래.

● 관리 체계 시급

지금은 비급여 가격 공개, 올해부터 보고.

그러나 가격 공개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지 오래. 새로운 비급여를 파악하지도 못해. 환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가격 비교를 해서 가격을 스스로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도 않는다.

-모른다, 안 한다..

비급여 총진료비 모른다,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

MRI CT 초음파 같은 비급여와 직결된 검사 장비 관리를 안 한다, 새 장비나 10, 20년 된 장비를 쓰나 검사 가격이 같다, 질 관리 방치돼 있다.

중복해서 검사해도, 의료기관을 옮겨서 검사해도 별문제가 안 된다. 대체할 수 있는 급여 검사나 치료법이 있을 텐데 관성대로 내버려 둔다.

지금은 환자의 선택이 아니라 주로 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환자에게, 건보에게, 심지어 민간보험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건강보험국, 보건의료정책국만으로 가능한가. 건강보험국은 의료개혁의 모든 짐을 떠안고 있다. 지금 보험급여과는 폭발 직전.

비급여관리국이 필요. 이에 맞춰 심평원, 건보공단의 조직도 따라가야.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손보험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별 상세한 정보, 의료기관별 비급여의 비율을 공개하고, 규모별로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게,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비중증 비급여

정부에서 예를 든 렌즈삽입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뱌브재건술은 분명히 문제 있다. “실손 있지요”라고 묻는 건 의학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다. 혼합진료 할 경우 건보료 청구를 금지하거나 건보든 실손이든 환자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동시 진료할 경우 분명히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 완전 비급여

도수치료 수액주사 등 과잉 우려가 높은 행위는 가격 상한을 정해 권고하는 방안 검토해야.

심평원 네카 등에서 의학적 효과를 검증해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효과 정도에 따라 선별 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정식 급여로 포함해야

●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범위 축소

의료기관 규모별로 본인부담금률을 분명하게 차등해서 적용하는데, 실손이 이를 과도하게 보장하면 문턱 기능을 못 하게 된다. 1~4세대 실손보험이나 향후 신상품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야.

반면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필수의료 강화, 1000개 중증질환 수가 인상,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인상 등을 하게 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저소득층이나 중간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보완해야.

● 실손보험 관리

금융위 금감원은 한계가 분명.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실손보험 관리에 건보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토 론 문

구 슬 이 보건복지여성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 관련 국회 논의 경과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진료행위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일부 보장하는 부분은 ‘급여 진료’로, 그 외의 부분은 ‘비급여 진료’로 분류되며, 급여 진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험자 부담금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짐. 즉, 환자는 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됨.

2022년도 우리나라 총 진료비는 120.6조로, 최초로 12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급여 진료비는 102.9조 원(보험자 부담금 79.2조 원, 본인부담금 23.7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 원으로 추산됨.

〈연도별 부문별 진료비 규모 변화〉



연도	보험자 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총 진료비
2015	44.0조 (6.1%)	14.0조 (7.8%)	11.5조 (2.5%)	69.5조 (5.8%)
2016	48.9조 (11.0%)	15.8조 (12.9%)	13.5조 (17.0%)	78.1조 (12.3%)
2017	52.5조 (7.5%)	16.9조 (7.2%)	14.3조 (6.6%)	83.7조 (7.3%)
2018	59.5조 (13.3%)	18.3조 (8.1%)	15.5조 (8.3%)	93.3조 (11.4%)
2019	66.3조 (11.5%)	20.3조 (11.2%)	16.6조 (7.0%)	103.3조 (10.7%)
2020	67.1조 (1.2%)	20.1조 (-1.2%)	15.6조 (-6.2%)	102.8조 (-0.5%)
2021	71.6조 (6.8%)	22.1조 (9.9%)	17.3조 (11.3%)	111.1조 (8.1%)
2022	79.2조 (10.5%)	23.7조 (7.5%)	17.6조 (1.8%)	120.6조 (8.5%)

주: 추정된 진료비는 연도별 ‘건강보험 통계연보’ 및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산출·추정한 값으로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음. (자료: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62.5%에서 2022년 65.7%로 소폭 상승하였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20% 전후로 거의 유지되어 왔음.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경우 2012년 17.2%, 2013년의 경우 18.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14.6%임.

〈연도별 보장률 및 부담률 변화〉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강보험 보장률	62.5	62.0	63.2	63.4	62.6	62.7	63.8	64.2	65.3	64.5	65.7
법정 본인부담률	20.3	20.0	19.7	20.1	20.2	20.2	19.6	19.7	19.5	19.9	19.7
비급여 본인부담률	17.2	18.0	17.1	16.5	17.2	17.1	16.6	16.1	15.2	15.6	14.6

주: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금(본인부담금 사후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요양비)를 포함함 (자료: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2022년 사이 총 진료비가 74% 증가하는 동안 공단 부담금은 80% 증가하였고, 본인부담금은 약 70%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손보험 가입 수요가 비급여 진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 측면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즉, 건강보험 보장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음.

실손의료보험의 계약건수는 2016년 3,330만 건에서 2023년 3,579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특히 실손보험이 세대별 개편을 거듭하면서 보장 영역이나 수준이 축소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손보험 초기만큼의 보장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실손보험의 설계 개편 등으로 인하여 2022년부터는 보험료 수익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고 있음.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공급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완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임.

당면한 문제는 앞서 발제자가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실손보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가 상당하다는 점임. 비급여 의료의 증가는 물론, 혼합진료나 급여 대상 진료의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발생하는 의료 증가량이 있기 때문임.

이에 국회에서도 실손보험을 관리할 필요성 및 비급여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먼저 제20대 국회(2016년~2020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하려는 취지를 가진 총 4건의 제

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실손의료보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었고,¹⁾ 정책협의체에서 ‘보험료 인하 유도, 상품구조의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라는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임.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김상희의원안(2017.12.29.), 윤소하의원안(2018.1.25.), 성일종의원안(2018.8.30.) 등 3건, 정무위원회에는 김종석의원안(2018.2.7.) 1건이 회부된 바 있음.

〈국민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련 제20대 국회 법률안 발의건〉

제안일자	제안자	제명	소관 위원회
2017.12.29.	김상희의원 등 43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018.1.25.	윤소하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018.2.7.	김종석의원 등 11인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원회
2018.8.30.	성일종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에 공·사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정책 개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의료비와 보험료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음.²⁾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의료비 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당국 및 금융당국이 각각 수행하는 현행 체계에서 TF 등 임시조직을 통한 협의로 정책 대응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를 운영하여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된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공·사의료보험 연계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에서는 공·사의료보험 자료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상호 영향이 명확히 규명되고 관련 부처 간 업무 협의가

1) 금융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2017.9.29.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 2015174호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018.11. p.13.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현행 의사결정 체계(공·사보험 정책협의체(TF))로도 제정안이 의도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해당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위원회로 관련 제정안이 회부된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의 소관 부처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에 관한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각각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다음으로,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는 2020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을 각각 개정하고 공동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하고³⁾, 정부 제출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615호)은 ①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민간 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614호)은 ①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제3보험상품 및 건강보험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실태조사를 위하여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동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고, 각각 소위원회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개정안이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적정화를 명분으로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 내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보장성 강화정책과 민간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⁴⁾ 또한, 민감한 진료 정보의 민간보험사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시함.⁵⁾

3)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추진」, 2020.12.24.

4) 국회 정부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112614호 정부 제출), 2021.11, p.10.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112615호 정부 제출), 2021.11, p.113.

참고로, 당시 손해보험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제도는 국민-의료계-보험회사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인구고령화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사보험 영역 모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음.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0년 12월에 「의료법」이 개정되었음.

이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1599호)의 내용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환자에게 사실상 강요하거나 이로 인해 과도한 진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감독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취지였음.

동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였고, 다만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보고의 기준이나 횟수를 정부의 재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한병원협회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항목, 기준 및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않은 기관과 거짓 보고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또한, 개정안의 ‘진료내역 등’의 범위가 모호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한 입법취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공표는 결국 의학적·정책적 필요성이나 현실은 도외시한 채 비급여진료를 비용(가격) 중심으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보고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진료 규모나 빈도 및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비급여 비용만으로 환자가 의원을 단순 비교하게 되면 의료의 질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음. 또한 의사들의 진료권, 전문성, 자율성 침해 및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행정적 부담도 제시하였음.

대한한 의사협회 또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부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하였음.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항목을 표준화하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함.

동 개정법률은 2023년 3월 시행되어, 2024년에는 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항목 또한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됨.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제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8월 16일 현재 기준으로 아직까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비급여와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았음.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내용들 중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통일부 『통일박람회』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출물 모니터링사업
제 7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운영-부스명: 오병이어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 8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제 10 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제 5 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제 5 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6 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제 6 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
제 11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재허가(12.31)
제 12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제 7 회 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
제 7 회 중장년세대 양코르 한마당
제 12 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12.8)
기획재정부공익법인 기부금단체재지정(12.31)
- 2022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8년 연속)
제 8 회 중장년세대 Re-Challenge 한마당
정책토론회 5회 개최
- 2023 지역발전운영자금 선정
제9회 중장년여성과 노인세대가 함께 하는 상·하반기 멘토링 공감여행
성남시립도담분당동지역아동센터,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수탁법인
- 2024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지역발전운영자금 선정
제10회 중장년여성과 노인세대가 함께 하는 상반기 멘토링 공감여행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3. 10. 11 (수)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주제 :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주제발표자 : 배 은 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2. 서 희 경 시의원 (성남시의회)
3. 윤 미 정 상임팀장 (성남시 건강복지센터)
4. 신 명 희 과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5. 남 현 주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사: 신 상 진 성남시 시장

박 은 미 성남시의회 부의장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1부 사회: 석 춘 지 前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관련 언론기사
성남아름방송 녹화방송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435> G글로벌경제신문1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992> 경인신문

<http://m.sisasports.com/29848> 시사&스포츠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6070 성남일보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697022233608267013> 수도권일보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46> 한국NGO신문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399> 청년의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5021> 중부일보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435> G글로벌경제신문2

<http://www.snjournal.com/35541> 성남저널

● 2023. 07. 06 (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제 :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

주제발표자 :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토 론 자:

1.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2. 이 만 우 선임입법조사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3.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이 무 열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5.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축사: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관: 국제사회복지협의회

1부 사회: 석 춘 지 (본 연구회 이사 / 前성남시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관련 언론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535> 중앙일보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5760 성남일보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5760 데일리안

<https://news.tf.co.kr/read/life/2029224.htm> 더팩트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7070198> 쿠키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5101848> 뉴스1 1보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1GE3LVO> 서울경제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307071618576124f83bf132e7_1&md=20230707165034_U 글로벌이코노믹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0710470871872> 머니투데이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498> 청년의사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33> 한국NGO신문 1보

<https://www.news1.kr/photos/view/?6088118> 뉴스1 2보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911> G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31> 한국NGO신문 2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94> 복지연합신문

● 2022. 11. 16 (수)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 :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와 국제협력

주제발표자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 론 자:

1. 한 창 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강 대 성 고문 (굿피플)
4. 김 윤 섭 센터장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 국제협력센터)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부 사회: 김 은 경 교수 (다산경영정보연구원/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ktin.net/62869998> 경인투데이뉴스 1보

<http://www.ktin.net/62869998> 경인투데이뉴스 2보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65> 한국NGO신문

<https://munhwa.newscj.com/article/20221117580085> 천지일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17000547> 뉴스핌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97> 복지연합신문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413> 환경일보

https://news.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2/11/20221117102331543f83bf132e7_1?md=20221117123023_U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289> G글로벌경제신문

<http://www.snillbo.co.kr/45111> 성남일보

● 2022. 11. 08 (화)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주제 :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모 두 발언 : 서 민 공동대표 (대안연대/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제발표자 :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 론 자:

1. 정 효 신 센터장 (굿피플장애인활동지원기관)
2. 석 춘 지 前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 박 영 애 前성남시의원
4. 조 기 흥 회계사
5. 남 천 우 관장 (상대원1동 복지회관)
6. 허 은 국장 (성남시 복지국)

공동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성남시민연대, 대안연대

1부 사회: 문 승 권 원장 (다산경영정보연구원/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성남아름방송

● 2022. 10. 26 (수)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주제 : 제 3의 송파, 수원 세모녀 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 1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자 : 윤 성 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토 론 자: 이 정 은 권익옹호 부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제 2주제 : 세모녀의 사회복지-현실과 대책

주제발표자 : 정 재 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김 태 완 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공동주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김 미 애 국회의원, 이 종 성 국회의원

1부 사회: 석 춘 지 前성남시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3995> 글로벌이코노믹

<https://news.zum.com/articles/79097202> 뉴스핌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962> G글로벌경제신문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050> 환경일보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6449 한국NGO신문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23> 헬스경향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0> 스트레이트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60095> 쿠키뉴스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75> 복지연합신문

국회방송

● 2022. 06. 29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제 :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자 : 오 건 호 정책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토 론 자:

1.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 강 성 호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주 은 선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주최: 성 일 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권 성 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 기 윤 국회의원
1부 사회: 김 은 경 교수 (삼육대학교/ 본 연구회 사무국장)
2부 좌장: 이 용 하 前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130> 충남일보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39950> 이코노미뉴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89> 여성신문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90157> 쿠키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4725157> 뉴스1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246> 뉴스티앤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70759/> 매일경제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26> 충청일보
<https://www.nb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459> 내외경제TV
<http://www.eopennews.com/news/view.php?no=30522#none> open뉴스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4621 한국ngo신문
https://www.asialbo.co.kr/posting/_extLink.php/21010100439495 아시아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209> 환경일보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4651 성남일보
http://www.cndnews.co.kr/sub_read.html?uid=349966 뉴스충청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40> 복지연합신문

● 2022. 05. 19 (목)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토론회 주제 :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초청강사: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공동주최: 송 석 준 국회의원
○격려사: 차 흥 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前보건복지부장관
○축 사: 서 상 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前보건복지부장관
1부 사회: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170> G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210923386180207> e대한경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86> 여성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32> 복지연합신문

● 2021. 12.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용·노동: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 육: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주거(부동산): 서 진 형 회장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김 미 령 소장(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 환경일보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311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77>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115> 글로벌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33> 백세시대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이로운넷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51> 복지연합신문

● 2021. 11.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 론 자:

1.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3.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본 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데일리안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131339373320664>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1000503> 뉴스핌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016> 환경일보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202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42>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521> 글로벌경제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880 한국NGO신문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충청일보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50> 복지연합신문

● 2021. 10. 19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자 :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토 론 자:

1.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2.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3.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4.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축 사: 이 효 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본 연구회 이사)

2부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116 성남일보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320 한국NGO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01824522680634> e대한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20> 백세시대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6> 복지연합신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69> 시사포커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325> 충청일보

● 2021. 9. 15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 : 김 원 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토 론 자:

1.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 김 광 병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4.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5. 이 상 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축 사: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 원: 행정안전부

1부 사회: 안 자 희 부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805>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128449> 한국NGO신문

<http://www.snillbo.co.kr/44068>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71555584220949>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5001201> 뉴스핌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053> 충청일보

● 2021. 8. 24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주제발표자 :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전문기자)

토 론 자:

1.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국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4.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부 사회: 김 은 경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복지뉴스

<http://m.snillbo.co.kr/a.html?uid=43991> 성남일보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 대한경제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뉴스핌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디지털타임스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MLUAXXRBCA/> 조선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72> 환경일보

● 2021. 6. 16 (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2.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김 대 광 청년 (취업후 퇴사, 창업/ 챗터서울 대표)
4.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1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_조선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ngonews.kr/120618> 한국NGO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10939375520029> e대한경제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데일리안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548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경인매일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이로온넷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 정 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 규 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 성 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 중 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제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 중 훈 기자 (중앙일보)

3.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 진 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 우 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 동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동 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 승 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 영 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 국 은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2.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 은 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주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사회복지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제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공동주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 12. 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동주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 윤 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 경 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 옥 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 열 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 찬 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 병 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 혜 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 진 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 기 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 연 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 신 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 혜 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재 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 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발표자 :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성 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 태 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 우 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 인 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 경 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 득 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 명 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 준 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정 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 동 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 양 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 수 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정 경 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 현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 영 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 수 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 근 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 은 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 성 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 명 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 근 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 점 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 종 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 성 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 오 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축 사 : 최 성 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 사 회 : 김 준 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 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 찬 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 삼 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 한 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 미 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 태 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 명 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 은 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 정 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토론자 :

1. 박 병 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 윤 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 준 수 교수(송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 윤 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 민 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 선 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훔플러스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인 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 광 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종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촬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 미 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 준 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 정 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흥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학 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 혜 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 대 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 현 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 명 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 말 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갯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 영 선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

1. 박 용 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 백 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 상 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 윤 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 서 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 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 영 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 미 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 선 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 순 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 영 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원)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 무 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 승 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 종 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 향 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 애 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 윤 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 관 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 욱 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 병 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 창 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 순 태 소장 (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 무 성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1인가구 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공감여행

-일시: 2024. 9.25

-장소: 춘천

2. 추석 노숙자 저녁배식 및 설거지 자원봉사

-일시: 2024. 9.18

-장소: 성남 모란 '안나의 집'

-참여대상자: 남녀노소 불문

3. 토 론 회

-일시: 2024.10.29.

-주제: 노인돌봄 및 간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성

-장소: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4. 토론회

-일시: 2024. 11월 27일

-주제: 미정

-장소: 미정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2)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동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34414&index=942&gotopage=4

● 2022년 10월 26일 '제 3의 송파·수원 2모녀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34414&index=942&gotopage=4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 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소장 김 미 령)
재단법인 만광장학회 (이사장 홍 효 주)
성남시 은행1동 다목적복지회관 (관장 장창현)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002-894690(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본 법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민단체로 복지전공자, 복지종사자, 복지관계자 아니어도 누구든지 함께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실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일 시 2024. 08. 22 (목)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최보윤 국회의원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보건복지부

축 사 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주제발표 정 형 선 소장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토 론 자 여 나 금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 원 식 객원교수 (조지아주립대)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구 슬 이 보건복지여성팀장 (국회입법조사처)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골든에이지포럼, 사)지속가능발전원,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동아노인복지연구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복지원로회,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일 시 2023. 10. 11 (수) 오후 1시 30분 ~ 오후 4시

장 소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주 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신 상 진 성남시 시장
박 은 미 성남시의회 부의장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주제발표 배 은 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서 희 경 시의원 (성남시의회)
윤 미 정 상임팀장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 명 희 관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남 현 주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대한노인회수정 · 중원 · 분당구지회,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남시민포럼, 고도제한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국제스마트복지센터(GSWC),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2023. 07. 11 (화) PM.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스마트복지의 길 -개도국에의 시사점

| **주최** | 서정숙·김성주·이종성 국회의원 | **주관** | 국제스마트복지센터(GSWC)
| **공동주최** |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 (사)선진사회복지연구원

| **발제** |

- **스마트복지: Why & How?**
서상목 |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디지털 복지국가,
우리나라의 실험과 개도국에의 시사점**
김수완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개도국의 스마트한 복지정책
시행방향 모색**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복지와 일자리의 선순환**
최 군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좌장** |

서상목 |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토론** |

- ① 이정숙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② 정무성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③ 조상미 |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 ④ 한은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





의료 · 영양 · 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일 시 2023. **07. 06** (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주 관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축 사 서 상 목 前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주제발표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토 론 자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이 만 우 선임입법조사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무 열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사)서울특별시보건협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NGO연합, 공정사회실천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일 시

2022.11. 16 (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주 제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와 국제협력

발 표 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강 대 성 고문 (굿피플)
- 2) 장 명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3) 한 창 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4) 김 윤 섭 센터장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국제협력센터)



YouTube



facebook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 시청 바랍니다.

협력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공정언론국민연대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2022. 11. 08 (화) 오후 2시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공동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성남시민연대 ■ 대안연대

후원



행정안전부

주제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모두발언

서민 공동대표 (대안연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자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론자

정호신 센터장 (굿피플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석춘지 前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영애 前 성남시의원

조기흥 회계사

남천우 관장 (상대원1동복지회관)

허은 국장 (성남시 복지국)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성남전철협,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공정언론국민연대, 전국민속5일장연합회 성남지부, 자영업자소상공인성남연대,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성남지부,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민의힘 성남지부, 성남환경실천연합회, 성남의힘

제 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2022.10.26.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이종성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발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발제자 윤성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자 박영용 회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발제 2 세모녀의 사회복지 - 현실과 대책

발제자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김태완 연구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정중규 정책실장(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본 토론은 YouTube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2022. 06. 29 (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성 일 종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격려사

이 갑 산 명예회장(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발표자

오 건 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좌 장

이 용 하 박사(前국민연금연구원장)

토론자

김 원 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강 성 호 박사(보험연구원)

주 은 선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토크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검색하세요.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공정언론국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최연혁 교수 초청 토크콘서트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일시 2022. 5. 19 (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송 석 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초청 교수

축사 서 상 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前 보건복지부 장관

격려사 차 흥 봉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원  행정안전부



최 연 혁 교수

·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본 토크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검색하세요.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